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10대들이여, 마음껏 소리쳐라”

“소녀시대 짱, 승리야 결혼하자, 멋져요, 사랑해요, 까악-”, ‘쇼! 음악중심’이 진행되는 스튜디오에서는 10대들의 함성소리로 아비규환을 이룬다. 풍선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가수들의 이름을 절규하는 10대들의 열정은 금방이라도 스튜디오를 폭파시킬 기세다.



열정의 시간

팬들은 본인이 사랑하는 가수가 다른 누구보다도 빛나고 주목받는 것이 기쁨이며 행복이다. 금방 터져버린 활화산의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눈빛, 가수들의 이름을 외치며 열렬히 환호하는 목소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뜨거울 수 있는 10대들의 흥분 속으로 빠져보자.

“가희씨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고, 소영씨는 조금 앞으로” 음악중심을 통해 데뷔하는 신인 여성그룹 ‘애프터스쿨’의 리허설이 한 참 진행 중이다. ‘정창형’ 연출은 첫 출연인 애프터스쿨의 위치를 조정해 주며, 조명감독, 영상감독, 작가들과 꼼꼼하게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첫 출연이라 신인들 무대에 대한 준비는 더욱 철저해 진다.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은 박가희(27), 김정아(26), 유소영(23), 이주연(22), 베카(20)로 구성된 여성5인조 그룹이다. 뛰어난 외모와 멋진 스타일, 출중한 무대매너로 2009년의 스타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SBS ‘가요대축제’에 손담비와 함께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애프터스쿨에 손담비가 참여한다는 소문으로 더욱 화제가 됐다.

애프터스쿨은 데뷔 전부터 멤버 개개인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가희는 보아, DJ DOC의 백댄서로 활동했었고, 손담비의 ‘배드보이’ 때 래퍼로도 활동해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주연은 MBC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 손담비의 친구로 나와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유소영은 김태희를 닮은 외모로 누리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다.



조명

이번 무대세트는 조명 버튼을 내릴 수 없는 콘셉트라서 조명작업이 먼저 이뤄졌다. 새벽 1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아침까지 계속됐다.

'정진욱' 조명감독에게 어떤 조명 디자인을 추구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방송환경에 맞으면서도 가수 개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MBC의 느낌을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서로를 자연스럽게 소통시킨다"며 명쾌한 답을 주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스타, 자신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소통시켜 가는 그의 마음가짐에서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았다.



세트

조명팀의 바턴들이 하나 둘씩 올라가며 세트 설치가 시작됐다. 이번 무대는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부채꼴 모양으로 가운데는 원통형의 개폐식 출입문을 제작하여 활용했다. 특별한 무대나 컴백스페셜의 경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대장치를 바꿔가며 사전녹화를 진행한다. 이날은 승리, SS501, 바비킴 등이 사전녹화를 했다.

'케이윌'의 무대에서는 세트 옆으로 예쁜 벤치를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는 영화 '과속스캔들, 황기동 역'의 '왕석현' 군이 한 소녀에게 프러포즈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음향

H2, 헤드셋3, H9, 뮐 의미하는지?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마이크의 종류와 개수를 약어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핸드 마이크 2개, 헤드셋 마이크 3개, 이렇게 말이다. 워낙에 많은 가수들이 출연하다 보니 마이크도 많이 사용되며, 댄스 가수들은 춤을 위해 헤드셋 마이크를 주로 사용한다. 음향은 현장의 관객들에게 소리를 전해 주는 스튜디오 PA 작업이 있고, 주파수를 타고 방송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부조에서의 수음작업이 있다. 가수들의 목소리는 개인용 마이크로 수음되어 부조실을 통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다. 아마도, 방청객의 함성소리가 가수들의 마이크로 다 들어온다면,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방송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음악 리허설

오전 9시, 방송준서에 맞춰 가수들의 음악 리허설이 진행됐다. 스타트는 '마리오의 슈퍼맨'으로 무대 중앙에는 마리오가 왼쪽에서는 2AM의 창민이 등장한다. 가수들은 본인의 노래를 방송에 맞도록 3분 20초의 시간으로 편곡해 온다. 이 음악과 노래, 안무를 맞추며 생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호소력 짙은 발라드로 지난 두 달간 팬들의 사랑을 받아 온 백지영이 '입술을 주고'라는 후속곡으로 쇼! 음악중심을 찾아왔다. 역시, 백지영답다는 느낌의 강렬한 춤은 방청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후속곡도 팬들에게 많은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영상

부조의 VCR실에서는 시그널, 사전녹화, 본방송 등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방송용 테이프에 담아낸다. 연출의 컷 사인에 따라 카메라가 잡는 영상들,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하나의 영상으로 이 테이프에 저장된다.

무대 좌우로 지미집 카메라가 2대, 가운데 스탠드 카메라 3대, 사이드에 ENG 카메라 2대까지 가수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킷마다 실 새 없이 담아내고 있다. ENG 카메라로 '쇼! 음악중심'의 MC들을 촬영하는데, 정지된 것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카메라가 움직여가며 활기찬 모습을 전달한다.



스태프 회의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음악 리허설로 숨 가쁘게 진행되더니 10시 20분부터 스태프 회의가 시작됐다. 이미 사전에 영상, 음향, 조명팀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지만 리허설을 하면서 변경되거나 무대에 대한 특이사항들을 짚어보는 시간이다. '정창형' 연출은 신인그룹의 멤버들간 위치가 바뀐 것을 설명해 주고, 케이윌 노래 중간에 아이들의 프리포즈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회의에 웃으며 참여하는 모습들이 즐거운 음악방송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모두들 파이팅하는 모습이 오늘도 좋은 방송을 예고한다.



사전녹화

11시부터 사전녹화가 시작됐다. 사전녹화는 다양한 무대와 멋진 스타일을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날은 멋진 세 남자 'SS501'의 녹화가 있었다. 팬들은 녹색풍선을 흔들고, 'URMan'을 따라 부르며, 스튜디오를 뒤흔드는 함성소리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입증시킨다.

사전녹화라고 가수들만 노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출연 가수의 팬클럽들이 스케줄에 맞춰 방청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연출자가 결정하여 사전녹화 때 방청객으로 들어와 가수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으로 만든다. 역시, 스타는 팬들이 만드는 것이다. 사전녹화를 해놓은 가수들도 순서에 맞춰 본인들의 시간이 되면 무대에 나와서 팬들에게 노래를 선사한다. 끝까지 다하기도 하지만 생방송이다 보니 다음 팀을 위해 조금 일찍 마치기도 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들의 무대가 계속되고 있다.



카메라 리허설과 본방송

12시 5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전녹화를 마무리하고,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카메라 리허설을 진행한다.

이후, 방청객이 입장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방청객이 입장하는 도중에도 리허설을 진행한다. 생방송이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리허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된다.

연출의 큐 사인과 함께 카메라가 돌고, MC인 승리, 솔비, 대성의 활기찬 멘트가 현장 분위기를 업 시킨다.

